



# 문화사랑회원 5만 눈앞... 공연장 형편 나아졌나요?

제주도 홈페이지 통해 회원 가입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 도문화회관 등 3개소 대상 관람료 30% 할인 등 혜택 회원 활용 프로그램은 전무 등급제·유료화 필요성 제기

제주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취지로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문화사랑회원 수가 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이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사랑회원은 제주도문화회관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도내 대표 3개 공공 공연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

연장마다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오다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맡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로그인하면 문화사랑회원 가입 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3개 공연장 전체나 일부를 선택해 가입에 동의하면 문화사랑회원으로 등록된다.

21일 현재 문화사랑회원은 4만 5973명에 이른다. 2017년 2월 제주도 통합 가입 이전 7163명에서 그해 연말 1만6938명, 2018년 3만2041명으로 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청 로그인과 연동되면서 회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3개 공연장에서는 문화사랑회원들에게 유료 공연 3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수신 동의자에 한해 해당 공연장의 행사 알림 문자메시지, 소식지 등도 보낸다.

하지만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문

화사랑회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회원 가입 정보를 토대로 연령이나 선호하는 공연 장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기획·초청 공연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5월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도 문화사랑회원제가 적용되지만 회원 가입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 일부 공연장은 관객 설문조사 등을 따로 실시해 이를 차후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장 별로 적어도 3만명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람료 감면 혜택만 주고 끝나 버리는 셈이다. 입장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 한편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대형 공연 선호 현상을 부른다는 주장도 있다. 도내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문화

사랑회원을 잘 활용하면 관객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원 등급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횟수 만큼 이용 실적 이 있으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공연장에서 시행하는 유료 회원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료 회원제는 숫자는 늘릴 수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충성도 높은 관객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연장의 관계자는 "무료 공연이 많은 제주에서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유료 회원들에게 선예매 권한 등 공연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시(詩)로 읽는 4:3 (22)

### 권평권

고은

1945년 9월 8일  
웬지 인천 앞바다 여름하늘 보던 날  
미군의 인천상륙 환영하러 나갔던 인천노조 지도자 권평권 위원장  
아직 무장해제가 안 된 일본군에게 총 맞아 죽었다  
이 밖에도 여럿이 쓰러졌다  
상륙한 미군은 일본군 편들었다  
왜냐  
해방군이 아니었으므로  
점령군이었으므로  
맥아더 일반명령 제1호의 점령군이었으므로

그 후리후리한 키 뺏이 굵어버렸다  
그 뒤로 내내  
이 땅에서는 순정이란 순정은 다 굵어버렸다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어느 골창에도  
개죽음이란 없다  
그 죽음 쌓여 오늘의 모순에 이르렀다  
성조기가 가장 잘 보이는 이 땅에서  
일장기가 가장 잘 보이는 이 땅에서

미국 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태평양 미육군사령관이었다. 미군정(美軍政, 1945년 8월 15~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통치 방침은 '맥아더 포고(布告)'에 집약되어 있다. '맥아더 포고'는 헌법이 없던 그 시절, 미군정 점령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규로 활용되었다. 제1호는 "본관 휘하의 전점군(戰捷軍)은 본일(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3에 대한 연루자들을 처벌할 때 적용한 법규는 맥아더 '포고 2'였다. 미국이 점령한 사이에 타진 4:3의 항거와 투쟁이 누구에 대한 항거였으며,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가.

군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일본군에게 총을 맞아 죽었다. 미군은 점령군으로 이 땅을 밟았으며, 미군은 철저하게 일본군 편이었다. 미군은 한국인에 의해 조성된 좌파성향의 조선 인민공화국과 우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제주농업학교에 설치된 미59군정중대 본부에도 성조기(星條旗)가 휘날렸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 선글라스에 옥수수파이프, 팽팽한 모자에 잘 다린 바지로 상징되는 튀는 옷차림에 대해 70대의 5성 장군이 19살 소위같이 다닌다는 비판도 있었다.

'권평권' 인천노조위원장은 미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4:3과 세월호에 가닿은 카메라의 힘

'사물들' 주제 정남 개인전 문화공간 양 이달 25일까지

인천항, 팽목항, 제주항이 3분 42초 영상에 이른거린다. 짐작하듯 세월호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 그의 카메라는 다시 함덕 서우봉, 정방포로로 향한다. 제주 4:3의 낮들이 배인 공간이다. 카메라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정남 작가의 비디오 아트가 문화공간 양(관장 김범진)에서 전시되고 있다. '사물들'이란

이름 아래 '로드무비', '홍콩, 영화', '장소 1', '장소 2' 등이 나왔다. 그는 영화관에서 영화이론가로, 비디오아트 작가로 변모해온 작가다. '로드무비', '홍콩, 영화'는 이같은 그의 개인사가 포개진 작품이다. '장소' 연작은 세월호와 4:3의 한가운데 가닿으려 한다.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18분여의 영상 '사물들'에는 빨간 공이 등장한다. 카메라가 쫓는다는 신호를 의미하는 형상으로 현장을 바로 기록하고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빨간 공은



정남의 비디오 아트 '장소 2'.

'장소 1'에서 빨간 점으로 표현된다.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계속된다. 김연주 기획자는 "제주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비디오 아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라고 했다. 문화공간 양 주소는 제주시 거로남6길 13. 목-일요일 낮 12~오후 6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4)755-2018. 진선희기자

## 문화가 쫓지

'카페 제박' 전시품 교체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특별전 '카페 제박' 전시품 일부를 바꿔 지난 20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카페 제박'은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후속 전시로 관람객의 편안한 휴식에 초점을 뒀다. 새로 추가된 전시품은 동화작가 전이수 군의 작품들로 9월 22일까지 만날 수 있다. 전시 일정의 마지막 한달(9월 24~10월 27일) 동안엔 지역 예술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전시로 꾸밀 예정이다.

예술로 산지전을 노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이 제주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산지전 갤러리의 기획전 '화첩가행 2019 탐라 순력도-산지전을 노닐다' 연계 행사로 이달 25일 오후 3시 '예술로 산지전을 노닐다'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획전엔 출품한 오민수·민병권·이창희 작가가 산지전을 시각예술로 구현하는 과정을 관람객과 나눈다. 가수 하림, 무용 양길호, 설치예술 강동우 등 세 명의 예술가가 빛어내는 퍼포먼스도 예정되어 있다.

'4:3과 인물' 증보판 발간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이 4:3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정리해놓은 '4:3과 인물' 증보판을 펴냈다. 이번 증보판은 지난해 초판 발행 이후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제작됐다. 집필을 맡은 김관후 작가는 기존 55개 쪽지에 7개의 쪽지를 더해 62개 쪽지로 증보판을 내놓았다. 제주문화원은 "우리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4)722-0203.

아일랜드 무비 캠프 페스타

서귀포시 성산읍 북함문화공간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아일랜드 무비 캠프 페스타'란 이름의 이색 영화제가 열린다. 이달 23~25일 개최되는 영화제는 광화문시네마 특별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작을 선보이는 주목받은 단편영화전, 제주의 여름밤, 감독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광화문시네마 GV, 특별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꾸민다. 상영작은 15편이 넘는다. 홈페이지(http://imcf.creatorlink.net) 참고.

## 문화회관 개관 기념일 '여민락 콘서트'

제주도문화회관 개관(1988년 8월 25일) 30주년 기념 행사로 첫선을 보였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사진)의 '여민락(與民樂) 콘서트'가 올해도 계속된다.

여민락은 '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다'는 의미로 고서 번역가이자 성악가인 현행복 원장이 작명했다.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달 2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2019 여민락 콘서트'는 김정택 예술단장이 이끄는 SBS팝스오케스트라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중심으로 제주 성악가인 소프라노 현성경, 제주민요를 부르는 소리꾼 안복자, 제주도립무용단, 제주도립제주합창단과 팝페라 5인조 그룹 컨템포디오, 경기민요 명창 최정아, 전태원,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연을 맡았던 바이올리니스트 KON(콘), '레전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4)710-7643. 진선희기자

**2F**  
수제두부전문점

**1F**  
베이커리 카페

BAKERY CAFE

용담동 310-11번지,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는 반세기 동안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콩을 삶으며 두부 그 이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의 꿈, '순수한 두부'를 펼칩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해 매일 신선한 두부를 만들고, 그 순수한 두부로 두부식빵에서 모말 순두부까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뭘 먹지?'하는 고민은 '순수한 두부'에게 맡겨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한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세기, 이 자리에서, '순수한 두부'가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건강한 한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한 수제두부

# 순수한 두부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일동)  
T. 064) 747-1361

6S25

미리 예약

용담사거리 \* 주차시설안내 \* 칠성로 방면